

정부, 돈단독·돼지옴 발생주의보 발령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20일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돼지단독과 돼지 “옴”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돼지단독

돼지 단독은 연중 발생하지만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급만성 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강하고 죽는 율이 높아 양돈장에 큰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돼지단독은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93년에 382두, '94년에 118두가 발생한 바 있고 금년 현재 25두가 발생하고 있다.

돼지 단독의 감염은 보균돼지의 똥이나 오줌, 침, 콧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비물들이 물과 사료 및 환경을 오염시켜 정상돼지에게 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올 여름철에도 돼지단독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

1. 주요증상

- 급성의 패혈증과 피부형 그리고 만성의 관절염과 심내막염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급성패혈증에서는 특별한 증상없이 죽거나 41~42°C 고열, 원기상실, 호흡곤란 등을 볼 수 있고 심한 경우 50% 이상 죽는다.
- 피부형은 식욕부진과 함께 발열이 있으며 체표에 특유의 타이아몬드형 발진과 함께 전신 여러 곳의 피부에 담홍색의 두드러기가 생긴다.
- 관절염형은 관절부위가 단단해 지기 때문에 절룩거리거나 관절을 굽혔다 폈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 심내막염형은 심장내막의 염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발육불량을 보인다.

2. 예방대책

- 돼지를 새로 구입할 때는 시장이나 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돈장

66

돼지 단독의 감염은 보균돼지의 똥이나 오줌, 침, 콧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비물들이 물과 사료 및 환경을 오염시켜 정상돼지에게 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올 여름철에도 돼지단독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

99

에서 구입하고 2~3주간 따로 사육하면서 예방 접종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한 다음 함께 사육한다.

- 돈사내외를 항상 깨끗이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 외부인이나 차량 등의 돈사출입을 제한한다.
- 부득이 돈사출입시에는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하고, 소독한 후 출입하도록 한다.
- 돈사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1주일에 한 두번씩 소독약을 교환해 준다.

3. 백신접종

- 국내에서는 생균 및 사균백신이 사용되고 있다.
- 생균 백신은 1회 접종함으로써 6개월간 면역된다.
- 사균백신은 현재 다른 예방약과 혼합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2회 접종으로 6개월간 면역된다.
- 임신한 돼지에는 분만 4~6주전에 접종하여 새끼돼지가 초유를 먹어 7~8주간 면역이 지속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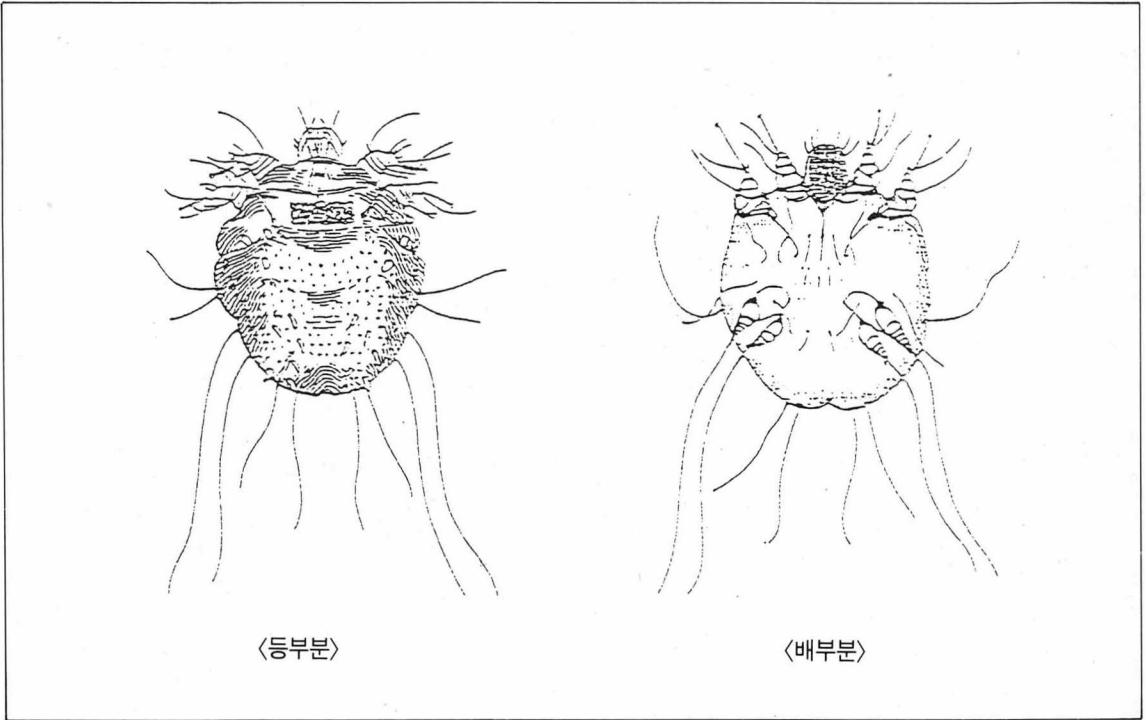
- 어린돼지는 생후 2주경에 예방접종 하지만, 비육말기에는 항체가 소실됨에 따라 발병할 수 있으므로 12주경에 다시 접종하여 면역을 보강해주는 것이 좋다.
- 생균백신을 접종하고자 할때에는 접종전 · 후 1주일간 항생물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돼지 “옴”

돼지의 발육부진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돼지 “옴”이 현재 전남과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 장마철을 맞아 돼지 “옴”의 빠른 확산으로 피해가 예상되니 양돈농가에서는 세심한 관찰과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1. 돼지 “옴”의 형태

- 돼지 “옴”은 몸길기와 폭이 약 0.5mm로 매우 작다.
- 돼지 “옴”을 “응애”라고도 부른다.



2. 주요증상

- 심한 가려움증으로 돼지는 벽 등에 피부를 비벼댄다.
- 앞다리, 뒷다리, 사타구니, 고환주위, 귓속 등의 피부에 붉은 반점과 고름 주머니가 생긴다.
- 감염된 피부주위가 부풀고 주름이 생긴다.
- 어미돼지가 감염되면 새끼돼지의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

3. 예방대책

- 한마리에 감염되면 함께 사육중인 모든 돼지에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1~2두 감염되면 즉시 구제해야 한다.
- 종부시 수태지로 부터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로 종부전 수태지를 대상으로 “옴”을 구제한다.

- 스톨사에서는 모돈을 개체마다 관찰하여 “옴”에 걸린 돼지는 즉시 구제한다.
- “옴” 구충제를 투여할때는 1주일 간격으로 3~4회 반복하여 출란까지 완전히 구제한다.
- 분만돈사에 입식하기 전 임신돈 및 분만돈사를 충분히 소독하여 “옴”을 구제한다.

4. 돼지 “옴” 구충제 및 사용방법

상 품 명	사용방법	특 징
도 푸 인	분 무 · 도 포	임신돈 사용가능
수 퍼 벤 질 액	분 무 · 도 포	임신돈 사용불가
이 보 맥	주 사	임신돈 사용가능
이보맥프리믹스	경 구 투 여	〃
세 바 실 푸 어 언	도 포	〃